

기본간호학 실습교육현황과 실습내용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이 영 휘*·서 화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 과정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적 이론을 습득함과 동시에 지식을 실습 과정을 통해 실제에 적용, 경험하게 함으로써 실제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홍여신, 최영희, 김조자, 1993 ; 김미애, 1996 ; Meleca, C.B., Schimpthauser, F., Witteman, J.K. & Sachs, L., 1981). 특히 기본간호학은 전문직 간호의 토대가 될 기본 이론과 기술을 익히는 간호학습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인간의 기본 건강요구에 바탕을 둔 간호학 원리를 실습실에서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간호현장에서든지 대상자들이 갖는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홍근표 등, 1995 ; 김정자, 김정애, 1995 ; 유재희, 1995).

이러한 기본간호학 실습은 학생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실습실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임상실습이라는 과목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임상실무간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겪는다(이숙자, 1989 ; 구미영, 김경희, 김희, 김미영, 김미진, 1994 ; 고

성희, 김기미, 1994 ; McCabe, B.W., 1985 ; Monahan, R.S., 1991).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학생시절부터 나아가 전문간호사가 된 이후까지 자신의 전문직에 대한 갈등 등으로 이어져 간호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강 등(1997)이 기본간호학 교과내용 개선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에서도 교수들 뿐 아니라 임상간호사들의 65%가 기본간호학 실습교육내용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임상활동과 교육내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로 기본간호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대부분은 기본간호학이 너무 방대하고,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학습교재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원인이지만 주요 원인으로서는 우리나라 임상실무에서 필요 하고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간호기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로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강규숙, 공은숙,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간호학 실습 내용에 대한 파악과 아울러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간호학 실습 내용 중 어떠한 항목에 대한 실습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교수들이 기본간호학 실습내용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임상활동과 교육내용의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한 조사와 그 원인을 조사하여 앞으로 국내에 보다 적용 가능한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술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실습실실습과 임상실습에서의 기본간호학 실습 항목에 대한 실습정도를 파악한다.
- 2) 임상에서의 기본간호학 실습 내용별 요구도를 파악한다.
- 3) 학교에서 학습한 기본간호학 실습내용에 대한 임상 적용시 일치정도를 파악하고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다.

II. 문헌 고찰

현재까지 기본간호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 보면 크게 기본간호행위에 대한 실습 전이나 실습 후에 학생들의 자신감(김미라, 1976 ; 이승미, 제현순, 1985 ; 유재희, 1992)이나 만족감(권영숙, 1985),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나 활동(최정신, 1980 ; 김동연 등, 1985)에 대한 조사와 기본간호학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김희옥, 1981 ; 강현숙, 1990 ; 정현숙, 1994) 그리고 기본간호학 교과과정 관련 실습내용에 대한 연구(변영순, 1983 ; 김정순, 1989 ; 유재희, 1995 ; 강규숙, 공은숙, 1997)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기본간호학 교과내용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유(1995)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현황에 대해 3,4년제로 구분하여 이수학점, 실습지도현황, 실습교육내용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기본간호 실습 지도에 있어서 대학과정이 전문대학 과정보다 적은 인원의 학생수를 질적으로 지도하고 있었으며, 다루어지는 실습내용과 실습시간 할당에 있어서는 전문대학 과정이 대학과정보다 다소 많은 실습내용을 다루었고 시간 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최근에 강과 공(1997)은 기본간호학 교과내용 개선을 위해 기본간호학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결과 연구대상자의 93%가 기본간호학 이론 교육이 간호학 전공과 임상간호활동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실습교육은 대상자의 96%가 간호학 전공에 필수적이고, 97%가 임상활동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은 과학기술과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기본간호학 교육내용이 변화되어야한다

는데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다. 이론교육에서는 무균법과 격리법, 개인위생, 활력징후, 투약, 간호기록, 생리적인 욕구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고, 실습교육에서는 활력징후 측정술, 무균술, 주사법, 인공배뇨, 간호기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보다 엄밀한 조사연구를 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간호교육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문제를 다루고 이론과 실제를 적용시켜 지적이면서 숙련된 기술과 독창적 기능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를 기르는 과정으로, 어느 과목 보다 간호교육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기본간호학은 교과과정 구성을 사회의 요구와 시대의 변천에 맞춰 계속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 1990 ; 신경림, 1993 ; Kessenich, C.R., 1992).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교과내용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고 그 결과에 대한 회환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교과내용에서 다루어져야할 내용들을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로 된다(Attridge, C.B., 1996 ; Morse W.A. & Corcoran-Perry, S., 1996).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었던 연구가 많지 않았고 강과 공(1997)의 연구에서도 교육되어야 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내용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 현황과 임상에서의 기본간호학 실습 내용별 요구도 및 교육받은 내용과 임상적용의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임상근무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기본간호학실습에 대한 내용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위치한 교육병원 중 각 1개 병원을 선택하여 병동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근무년수가 1-5년인 간호사를 유의표출(purposive sampling)하였다. 표집대상의 근무년수와 근무부서를 병동과 중환자실로 한정된 이유는 학교에서 실습했던 내용

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고 기본간호술의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를 선택하기 위해서였다. 표집 총 대상자는 102명이었으며 그 중 질문에 대한 회수가 되지 않은 11명과 불완전한 응답을 한 5명을 제외한 86명을 최종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6년 10월 7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진행하였다.

3.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들이 직접 개발한 질문지이다. 질문지의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는 6문항과 학교실습 정도를 묻는 부분, 임상에서의 기본간호학 실습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묻는 부분 그리고 교육내용과 임상적용의 차이정도 및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구의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출간된 기본간호학 교과서 9권을 대상으로 실습항목을 분석하였고 최종 5개 이상의 교과서에서 언급한 30개 영역의 72항목을 채택하여 기본간호학 실습 항목으로 문항을 만들었다. 학교 실습 정도를 파악하는 부분에서는 실습실실습과 임상실습으로 구분한 뒤 채택된 기본간호학 실습항목을 실습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을 하였고, 임상에서의 기본간호학 실습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택된 기본간호학 실습항목에 대해 '꼭 필요하다'에서 '불필요하다'까지 3점의 Likert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임상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는 채택된 기본간호학 실습 항목에 대해 '아주 일치한다'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까지 3점의 Likert scale로 차이의 정도를 측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A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각각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 등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고, 서술식 항목에 대한 응답은 서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즉 임상 근무 경력은 2년 이하가 38.4%, 3년 이하가 24.4%, 4년 이하가 20.9%, 5년 이하가 16.3%였고, 현 근무부서는 내과계 병동이 34.9%, 외과계 병동이 32.5%, 산부인과 병동이 12.8%, 소아과 병동이 10.5%, 중환자실 근무가 9.3%였으며 현 직위는 평간호사가 91.9%, 주임(책임)간호사가 8.1%로 대부분이 평간호사였다. 최종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76.7%, 대학졸업이 22.1%, 대학원 졸업이 1.2%였고 학부과정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장소를 모두 기록하게 한 결과 지방의 대학부속 병원이 85명 중 57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병원에서 실습을 경험한 사람도 85명중 18명(21.2%)이나 되었다. 임상에서 주요 실습지도자를 조사한 결과 Instructor, 수간호사, 일반간호사가 모두 참여하여 지도하는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6)

특 성	구 분	실수(%)	특 성	구 분	실수(%)
임상근무경력	2년 이하	33(38.4)	임상실습장소 (중복응답)	지방의 대학부속병원	57(67.1)
	3년 이하	21(24.4)		지방의 종합병원	37(43.5)
	4년 이하	18(20.9)		서울의 대학부속병원	36(42.4)
	5년 이하	14(16.3)		서울의 종합병원	13(15.3)
근무부서	내과계 병동	30(34.9)	임상실습 지도자	일반병원	18(21.2)
	외과계 병동	28(32.5)		Instructor	4(4.6)
	산부인과 병동	11(12.8)		(교수, 조교, 임상강사)	
	소아과 병동	9(10.5)		수간호사	1(1.2)
	중환자실	8(9.3)		일반간호사	6(7.0)
현 직위	평간호사	79(91.9)	Instructor+수간호사	13(15.1)	
	주임(책임)간호사	7(8.1)	Instructor+일반간호사	3(3.5)	
최종학력	전문대학교	66(76.7)	수간호사+일반간호사	9(10.5)	
	대학교	19(22.1)	Instructor+수간호사+		
	대학원	1(1.2)	일반간호사	50(58.1)	

형태가 58.1%로 가장 많았고, 주요 실습지도자가 수간호사만인 경우(1.2%)와 일반간호사만으로 구성된 경우(7.0%)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실습교육에 대한 교수효율성과 관련한 연구결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임상실습이 전임교수가 중심이 되어 학습한 이론적 내용을 실무와 연결하여 지도해야 하는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사료된다(김미애, 1996 ; Kiker, P.J., 1973 ; Brown, S.T., 1981).

2. 기본간호학 실습 현황

기본간호학 실습항목에 대한 실습을 어느정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실습항목별로 실습의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활력징후에서 체온의 측정, 실습실실습(89.4%)과 임상실습(92.9%) 모두에서 액와 측정 방법이 가장 많았고, 맥박의 측정에서도 실습실실습(91.8%), 임상실습(100%) 모두에서 요골맥박의 측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측정은 실습실실습과 임상실습 모두에서 100%의 실습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혈압측정은 실습실실습에서는 앉은 자세에서의 혈압측정(82.4%)을 가장 많이 경험한 반면 임상실습에서는 누운 자세에서의 혈압측정(91.8%)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 관련 실습은 실습실실습에서 등마사지(70.6%) 실습을 비교적 많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에서는 구강간호(87.1%) 실습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균술 실습에서는 실습실실습(85.9%)과 임상실습(84.7%) 모두에서 손씻기에 대한 실습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냉요법에 대한 실습실실습은 비교적 낮은 실습경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는 얼음주머니를 이용한 냉요법 실습이 64.7%, 더운물주머니를 이용한 열요법 실습이 62.4%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상실습을 통한 온냉요법 실습은 얼음물주머니를 이용한 냉요법 실습의 경우 91.8%의 실습빈도를 나타내고 있고 더운물주머니를 이용한 열요법 실습은 85.9%의 실습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투약에서는 근육주사 실습이 실습실실습(89.4%)과 임상실습(96.5%) 모두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실습내용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안정과 관련한 실습 내용에서는 빈침상 만들기 실습실실습(88.2%)과 임상실습(91.8%) 모두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실습내용으로 나타났으나 체위변경에 대한 실습은 실습실실습에서 50.6%만이 실습

을 경험한 반면 임상실습에서는 89.4%가 실습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실습실실습보다 임상실습에서 더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과 배설 요구관련 실습에서는 실습실실습에서는 비눗물관장 실습(80.0%)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에서는 단순도뇨실습(82.4%)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장실습항목에서는 임상실습에서 글리세린 관장실습(76.5%)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실습실실습에서 가장 많이 실습하였던 관장실습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산소요구 관련 실습에서는 실습실실습은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실습경험빈도를 나타내고 있고 임상실습에서만 구강, 비강을 통한 흡인실습이 83.5%로 비교적 높은 실습경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20%이하에서 실습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항목도 있는데 실습실실습에서는 정체관장(20.0%), 퇴원(20.0%), 전실(17.6%), 귀약투여(17.6%), 기관절개간호(16.5%), 직장약 투여(15.3%), 방광세척(14.1%), 수혈(12.9%), 위세척(12.9%), 고농도 글루코즈관장(12.9%), 결장루간호(12.9%), 흉곽배액(11.8%), 사후처리(5.9%)였고, 임상실습에서는 귀약투여(18.8%), 위세척(17.6%), 심폐소생술(17.6%), 사후처리(12.9%)가 비교적 낮은 빈도의 실습을 경험하였던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습항목에 대한 실습경험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습실실습의 경우 첫째 교과과정상의 문제로 기본간호학 실습시간의 부족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실습시간의 부족은 기본간호학 학점 자체가 적은 경우도 있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실습보다 이론교육에 치우치는 경향도 문제라 하겠다. 강과 공(1997)은 기본간호학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본간호학 교과내용이 간호기술보다 이론에 더 치중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간호학문이 실용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실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기본간호학을 실습하기 위한 적절한 실습공간의 확보가 미흡한 점과 실습을 할 수 있는 기자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다. 임(1997) 등이 연구한 간호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 보유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학의 실습기자재 보유수량을 교육부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86개 품목 중 단순도뇨세트와 이동식 정맥주사결대만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았고 나머지 84항목에 대해서는 실습기자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문대학에서는 실

<표 2> 기본간호실습 항목에 대한 실습 수행정도

(n=86)

특 성	구 분	실습실실습	임상실습		
		실수(%)	실수(%)		
활력징후	체온	구강	72(84.7)	70(82.4)	
		항문	42(49.4)	58(68.2)	
		액와	76(89.4)	79(92.9)	
	맥박	요골	78(91.8)	85(100.0)	
		심첨	69(81.2)	64(75.3)	
		측두	59(69.4)	37(43.5)	
		서혜	53(62.4)	45(52.9)	
	호흡	발등	39(45.9)	50(58.8)	
			85(100.0)	85(100.0)	
		혈압	와	69(81.2)	78(91.8)
			좌	70(82.4)	76(89.4)
			입	59(69.4)	60(70.6)
등마사지	60(70.6)		72(84.7)		
개인위생	구강간호	49(57.6)	74(87.1)		
	욕창간호	45(52.9)	64(75.3)		
	회음간호	46(54.1)	64(75.3)		
	가운, 장갑, 마스크사용	72(84.7)	71(83.5)		
무균술	내과적 무균술	손씻기	73(85.9)	72(84.7)	
		격리술	56(65.9)	59(69.4)	
		전달감자 사용법	67(78.8)	70(82.4)	
	외과적 무균술	멸균포 다루는법	69(81.2)	69(81.2)	
		멸균물품 다루는법	70(82.4)	66(77.6)	
		상처간호	27(31.8)	47(55.3)	
	온냉요법	냉요법	고정배액이 있는 상처간호	12(14.1)	39(45.9)
			얼음물주머니	55(64.7)	78(91.8)
			얼음칼라	22(25.9)	35(41.2)
		열요법	미온수스폰지목욕	47(55.3)	56(65.9)
더운물주머니			53(62.4)	73(85.9)	
투약	뜨거운 패드	가열램프	23(27.1)	31(36.5)	
		경구투여	28(32.9)	60(70.6)	
		경구투여	58(68.2)	64(75.3)	
		귀약투여	15(17.6)	16(18.8)	
		안약투여	20(23.5)	41(48.2)	
		직장약투여	13(15.3)	25(29.4)	
		피부도찰	19(22.4)	41(48.2)	
		근육주사	76(89.4)	82(96.5)	
		피하주사	38(44.7)	61(71.8)	
		피내주사	53(62.4)	56(65.9)	
		정맥내 주입	60(70.6)	71(83.5)	
		수혈	11(12.9)	27(31.8)	
안전과 안정	입퇴원	임원	20(23.5)	54(63.5)	
		퇴원	17(20.0)	47(55.3)	
		전실	15(17.6)	40(47.1)	
	억제대 사용	62(72.9)	47(55.3)		

<표 2> 계속

(n=86)

특 성	구 분	실습실실습	임상실습	
		실수(%)	실수(%)	
영양과 배설요구	침상만들기	75(88.2)	78(91.8)	
	든침상	빈침상	73(85.9)	57(67.1)
		수술침상	44(51.8)	44(51.8)
	환자운동	골절침상	35(41.2)	29(34.1)
		체위변경	43(50.6)	76(89.4)
		관절운동	37(43.5)	43(50.6)
		목발사용법	24(28.2)	31(36.5)
	산소요구	위세척	11(12.9)	15(17.6)
		비위관 영양	27(31.8)	66(77.6)
		도뇨	단순도뇨	48(56.5)
유치도뇨			46(54.1)	58(68.2)
자연배뇨 돕는법		37(43.5)	57(67.1)	
관장		방광세척	12(14.1)	31(36.5)
		클리세린관장	29(34.1)	65(76.5)
		비눗물관장	68(80.0)	63(74.1)
		정체관장	17(20.0)	24(28.2)
임종환자 간호		고농도 글루코즈관장	11(12.9)	17(20.0)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58(68.2)	47(55.3)	
	결장루 간호	11(12.9)	21(24.7)	
	흡인	구강, 비강을 통한 흡인	31(36.5)	71(83.5)
		기도흡인	34(40.0)	63(74.1)
	체위배액	18(21.2)	33(38.8)	
	흉곽배액	10(11.8)	22(25.9)	
	기관절개간호	14(16.5)	47(55.3)	
산소투여	비강카테터, 비강캐놀라	29(34.1)	67(78.8)	
	산소마스크	25(29.4)	55(64.7)	
심폐소생술	28(32.9)	15(17.6)		
사후처리	5(5.9)	11(12.9)		

습기자재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습기자재가 나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습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수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임상실습에서의 나열된 항목에 대한 실습 경험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실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기관에 대한 선정과 학생들의 기본간호술 적용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수의 자세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3. 임상에서의 기본간호학 실습내용 요구도

학교의 교육을 통해 진행되는 교과 내용은 결국 사회

의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학의 경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 그것을 적용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에서의 기본간호학 실습 내용에 대한 요구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한 대상자의 90%이상이 체온측정과 침상만들기를 제외한 제시된 모든 실습 항목에서 임상에 필요한 실습내용이라고 응답을 하였다. 이 중 70%이상이 '꼭 필요한 실습 항목'으로 지적한 내용을 살펴 보면 외과적 무균술에서 전달감자 사용법(75.6%), 멸균포 다루는 법(73.3%), 멸균물품 다루는 법(72.1%)이었고, 투약에서 근육주사(73.3%), 피하주사(70.9%), 정맥내 주입

(75.6%), 수혈(74.4%)이 간호활동을 위해 필요한 실습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영양과 배설요구에서 단순도뇨(79.1%)와 유치도뇨(79.1%), 정체관장(73.2%)이 꼭 필요로 되는 실습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폐소생술(74.4%)이 임상에서 필요로 되는 실습내용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강과 공(1987)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즉 94% 이상이 위에서 제시한 무균술이 필요한 실습항목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투약에서도 피내주사(96%), 근육주사(96%), 정맥주사법(93%)이 필요한 실습항목이라고 하였으며, 영양과 배설요구에서 정체배뇨술(97%)과 배변 관장술(94%)이 필요한 실습항목이라고 답하였다. 산소요구인 분비물 흡인술과 기관절개관간호술의 경우에는 강과 공(1987)의 연구에서는 각각 93%와 91%의 필요정도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꼭 필요하다'에 응답한 정도가 각각 69.8%와 50.0%였고 '필요하다'를 합하면 각각 98.8%와 97.7%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응답한 임상간호사들의 70%이상이 임상에서 꼭 필요한 실습내용이라고 지적한 항목 중 <표 2>의 기본간호실습항목에 대한 실습 수행정도에서 실습실실습과 임상실습에서 빈도가 낮았던 항목은 정체관장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항목으로 앞으로 기본간호학 실습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반면, 응답자의 10%이상이 기본간호학 실습항목 중 임상에서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을 살펴보면 활력징후에서 구강(11.6%), 항문(12.8%)에서의 체온 측정과 침상만들기의 모든 항목으로 빈침상(11.6%)과 든침상(12.8%), 수술침상(16.3%), 골절침상(14.0%)만들기가 불필요한 실습항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력징후에서 구강과 항문으로의 체온측정이 불필요한 실습항목으로 생각된 것은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체온 측정을 액와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나 항문으로의 체온 측정은 이것이 대부분 신생아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가 소아과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9명이었고 나머지 대상자들이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들로부터 자료가 수집된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침상 만들기의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 실습의 요구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실제 임상에서 침상을 만들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원리만을 이용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 강과 공(1987)의 연구에서도 침상만들기 항목에 대해 필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방법의 차이와 함께 특별히 실습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표 2>의 기본간호실습항목에 대한 실습수행정도에서 나타난 침상만들기 실습 중 특히 빈침상 만들기항목은 응답자의 88.2%가 실습실실습에서, 91.8%가 임상실습을 통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 기본간호학 실습의 임상적용에 대한 평가

임상에서 간호사로서 기본간호술을 적용시 학교에서 학습하였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이상의 불일치를 나타낸 항목과 그에대한 원인은 <표 4>와 같다.

'시간부족'은 <표 4>에 제시된 항목외에도 90% 이상의 일치도를 나타낸 실습항목의 대부분에서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간호활동에 대한 시간부족 문제는 궁극적으로 간호활동에 따른 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적절한 간호인력확보와 관련된 문제로 간호분야에서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료들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법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라는 원인은 특히 침상만들기, 내과적 무균술의 적용, 뇨요법과 열요법, 섭취량과 배설량 실습 항목에서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간호기술은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용이성도 있어야 실무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이론적인 근거와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비교 연구하여 교과내용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원인은 사용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한 것으로 '병원의 물품이 적당하지 않거나 부족한 것'이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 환자간호에 병원물품의 부족성과 부적절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치도가 90%이상으로 높았던 항목 중 흉곽배액과 심폐소생술, 환자운동 실습에서 차이의 원인으로 '미처 정확한 이론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것이 있는데 따라서 이 항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전달을 바탕으로 한 실습을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내용 결정과 국내의 임상

<표 3> 임상에서의 기본간호학 실습내용 요구도 (n=86)

특 성	구 분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실수(%)	실수(%)	실수(%)	
활동정후	체온	구강	14(16.3)	62(72.1)	10(11.6)
		항문	11(12.8)	64(74.4)	11(12.8)
	맥박	액와	42(48.8)	37(43.1)	7(8.1)
		요골	49(57.0)	34(39.5)	3(3.5)
		심첨	33(38.4)	52(60.4)	1(1.2)
		측두	9(10.5)	70(81.4)	7(8.1)
		서혜	10(11.6)	70(81.4)	6(7.0)
		발등	18(20.9)	52(60.4)	6(7.0)
	호흡 혈압	와	42(48.8)	40(46.5)	4(4.7)
		좌	50(58.1)	33(38.4)	3(3.5)
입		26(30.2)	55(64.0)	5(5.8)	
개인위생	등마사지	18(21.0)	61(70.9)	7(8.1)	
	등마사지	26(30.2)	56(65.1)	4(4.7)	
	구강간호	26(30.2)	56(65.1)	4(4.7)	
	목창간호	35(40.7)	48(55.8)	3(3.5)	
무균술	내과적 무균술	회음간호	47(54.7)	35(40.7)	4(4.6)
		가운, 장갑, 마스크사용	39(45.3)	43(50.0)	4(4.7)
		가운, 장갑, 마스크사용	53(61.7)	31(36.0)	2(2.3)
	외과적 무균술	손씻기	49(57.0)	35(40.7)	2(2.3)
		격리술	52(60.4)	33(38.4)	1(1.2)
		전달감자 사용법	65(75.6)	21(24.4)	0(0.0)
		멸균포 다루는법	63(73.3)	22(25.5)	1(1.2)
	상처 간호	멸균물품 다루는법	62(72.1)	23(26.7)	1(1.2)
		드레싱교환	39(45.4)	47(54.6)	0(0.0)
		고정배액이 있는 상처간호	40(46.5)	45(52.3)	1(1.2)
온냉요법	냉요법	얼음주머니	41(47.7)	44(51.1)	1(1.2)
		얼음칼라	17(19.8)	67(77.9)	2(2.3)
		미온수목욕	18(20.9)	66(76.8)	2(2.3)
	열요법	더운물주머니	43(50.0)	41(47.7)	2(2.3)
		뜨거운패드	17(19.8)	65(75.6)	4(4.6)
		가열램프	21(24.4)	61(71.0)	4(4.6)
투약	투약	경구투여	54(62.8)	29(33.7)	3(3.5)
		귀약투여	28(32.5)	55(64.0)	3(3.5)
		안약투여	35(40.7)	49(57.0)	2(2.3)
		직장약투여	28(32.6)	55(63.9)	3(3.5)
		피부도찰	28(32.6)	55(63.9)	3(3.5)
		피부도찰	23(26.7)	59(68.6)	4(4.7)
		근육주사	23(26.7)	59(68.6)	4(4.7)
		피하주사	63(73.3)	22(25.5)	1(1.2)
		피하주사	61(70.9)	24(27.9)	1(1.2)
		피내주사	60(69.8)	25(29.0)	1(1.2)
안전과 안정	입퇴원	정맥내 주입	65(75.6)	20(23.2)	1(1.2)
		수혈	64(74.4)	20(23.3)	2(2.3)
		입원	44(51.2)	39(45.3)	3(3.5)
		퇴원	43(50.0)	40(46.5)	3(3.5)
	억제대 사용	전실	39(45.4)	45(52.3)	2(2.3)
		억제대 사용	13(15.1)	70(81.4)	3(3.5)
		침상	13(15.1)	70(81.4)	3(3.5)
	만들기	빈침상	18(20.9)	58(67.5)	10(11.6)
		튼침상	17(19.8)	58(67.4)	11(12.8)
		수술침상	14(16.3)	58(67.4)	14(16.3)
	곧결침상	13(15.1)	61(70.9)	12(14.0)	

<표 3> 계속

(n=86)

특 성	구 분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실수(%)	실수(%)	실수(%)		
영양과 배설요구	환자	체위변경	48(55.8)	37(43.0)	1(1.2)	
	운동	관절운동	32(37.2)	52(60.5)	2(2.3)	
		독발사용법	21(24.4)	61(70.9)	4(4.7)	
	위세척	비위관 영양	23(26.8)	61(70.9)	2(2.3)	
		도뇨	단순도뇨	68(79.1)	16(18.6)	2(2.3)
	자연배뇨	유치도뇨	68(79.1)	16(18.6)	2(2.3)	
		돕는법	55(64.0)	30(34.8)	1(1.2)	
	방광세척	관장	글리세린관장	50(58.2)	34(39.5)	2(2.3)
			비눗물관장	34(39.5)	49(57.0)	3(3.5)
			정체관장	20(23.2)	63(73.3)	3(3.5)
			고농도 글루코즈관장	63(73.2)	21(24.5)	2(2.3)
	산소요구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30(34.9)	54(62.8)	2(2.3)	
		결장루 간호	36(41.9)	49(56.9)	1(1.2)	
		흡인	구강, 비강을 통한 흡인	19(22.1)	63(73.3)	4(4.6)
기도흡인			60(69.8)	25(29.0)	1(1.2)	
체위배액		흉곽배액	기도흡인	59(68.7)	25(29.0)	2(2.3)
			체위배액	24(27.9)	59(68.6)	3(3.5)
기관절개간호		산소 투여	흉곽배액	27(31.4)	57(66.3)	2(2.3)
			기관절개간호	43(50.0)	41(47.7)	2(2.3)
임종환자 간호		사후처리	산소 투여	57(66.3)	27(31.4)	2(2.3)
			비강카테터, 비강캐놀라	51(59.3)	33(38.4)	2(2.3)
	산소마스크		51(59.3)	33(38.4)	2(2.3)	
	심폐소생술	64(74.4)	21(24.4)	1(1.2)		
	사후처리	21(24.4)	61(70.9)	4(4.7)		

<표 4> 학교에서 학습한 기본간호학 실습내용에 대한 임상적용시 일치정도와 차이에 대한 원인

(n=86)

구 분	아주 일치한다	비교적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차이에 대한 원인
	실수(%)	실수(%)	실수(%)	
격리술	22(25.6)	46(53.5)	18(20.9)	경제성이 떨어지기때문에 병실사용료(의료보험수가) 때문에 시간이 너무 걸려서 병원에 있는 물품이 적당치 않아서 동료들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 퇴원	13(15.1)	62(72.1)	11(12.8)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병원에 있는 물품이 적당치 않아서
이실	12(13.9)	62(72.1)	12(14.0)	학교에서 배운 것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빈침상	11(12.8)	66(76.7)	9(10.5)	학교에서 배운 것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동료들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빈침상	21(24.4)	37(43.0)	28(32.6)	시간이 너무 걸려서
든침상	15(17.5)	45(52.3)	26(30.2)	병원의 물품부족으로
수술침상	10(11.6)	52(60.5)	24(27.9)	현재방법이 더 익숙하기때문에
결절침상	7(8.1)	55(64.0)	24(27.9)	학교에서 배운 것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동료들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방법이 더 편하기 때문에
정체관장	30(34.9)	46(53.5)	10(11.6)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물품이 적당치 않아서

실무분야에 보다 적용 가능한 기본간호술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지방 각각 한 개의 교육병원에 근무하는 1-5년경력의 간호사 86명이었으며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실습실실습과 임상실습을 통한 기본간호학 실습현황을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실습을 하였으나 전체 응답자의 20%이하에서 실습을 경험한 항목도 있었는데 실습실실습에서는 정체관장, 퇴원, 전실, 귀약투여, 기관절개간호, 직장약 투여, 방광세척, 수혈, 위세척, 고농도 글루코즈관장, 결장투간호, 흉곽배액, 사후처리였고, 임상실습에서는 귀약투여, 위세척, 심폐소생술, 사후처리 항목이었다.
- 2) 임상에서의 기본간호학 실습내용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한 대상자의 90%이상이 체온측정과 침상만들기를 제외한 제시된 모든 실습 항목이 임상에 필요한 실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중 70%이상이 '꼭 필요한 실습 항목'으로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달감자 사용법, 멸균포 다루는 법, 멸균물품 다루는 법, 근육주사, 피하주사, 정맥내 주입, 수혈, 단순도뇨, 유치도뇨, 정체관장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응답자의 10%이상이 기본간호학 실습 중 임상에서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을 살펴보면 구강, 항문에서의 체온 측정과 침상만들기 전체 항목이 불필요한 실습항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교에서 학습한 기본간호학 실습내용에 대한 임상 적용시 일치정도를 살펴본 결과 격리술 실습과 입퇴원 관련 실습, 침상만들기 관련 실습 그리고 정체관장 실습을 제외한 모든 실습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학교에서 학습한 실습방법과 비교적 일치된 방법으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습했던 내용과 임상적용과의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시간부족', '동료들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기구의 부족', '병원에 있는 기구가 적당치 않은 것'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 1) 임상간호사가 꼭 필요한 실습항목이라고 지적한 항목 중 실습 빈도가 낮은 정체관장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간호학 실습내용의 반영을 제언한다.
- 2) 임상간호사들이 불필요한 항목으로 지적한 침상만들기 실습을 제외 시킬 것인지 아니면 실습 내용이나 방

법을 변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 3)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임상에 적용할 때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교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 4) 본 연구는 서울과 지방의 각 1개의 교육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결과를 좀 더 일반화 시키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강규숙, 공은숙 (1997). 기본간호학 교과내용 개선을 위한 일 조사연구-간호학 교수와 임상 실무교육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27(1), 83-95.

강현숙 (1990). 기본간호학 실습 Video tape을 이용한 사전 교육이 첫 임상실습 전 불안에 미치는 효과. 공주전문대학 논문집, 17, 171-183.

고성희, 김기미 (1994).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33(2), 59-71.

구미영, 김경희, 김희, 김미영, 김미진 (1994).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인지도와 실습 수행능력과의 관계. 가톨릭간호, 제15권, 51-62.

권영숙 (1985). 일 종합병원 입원환자들의 기본간호에 대한 요구도 및 만족도. 동산간호전문대학 논문집, 4, 87-117.

김동연, 박지은, 심정옥 (1985). 기본간호에 대한 간호학생의 인식도와 수행도 비교. 가톨릭 간호, 6(1), 45-54.

김미라 (1976). 기본간호행위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자신감 조사. 대한간호, 15(2), 100-122.

김미애 (1996). 임상간호실습교육의 교수효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순 (1989). 현장실습 후 기본간호실습내용 및 소요시간의 충분성 여부 조사. 인천간호, 제7집.

김정자, 김정애 (1995). 기본간호학, 서울: 현문사.

김희옥 (1981). 기본간호학 실습에 있어 전통적 학습과 자율적 학습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변영순 (1983). 기초간호학 교과과정의 방향. 간호학회지, 13(1), 95-98.

신경림 (1993). 임상교육이 효과적인 대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32(5), 93-104.

유재희 (1992). 간호전문대학 졸업반 학생의 기본간호

- 술 정확도 및 자신감에 대한 조사 연구. 경기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 25-40.
- 유재희 (1995).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현황. 기본간호학회지, 2(2), 199-211.
- 이숙자 (1989).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통제위 성격과의 관계연구.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제 7권, 5-19.
- 이승미, 제현순 (1985). 일부 간호학생들의 기본간호행위에 대한 자신감. 가톨릭 간호, 6(1), 26-38.
- 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 (1990).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간호학 논문집, 13, 17-27.
- 임난영, 이선옥, 서문자, 김혜숙, 김문실, 오경옥 (1997). 간호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 보유실태조사. 대한간호, 36(1), 108-117.
- 정현숙 (1994).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 모듈학습자료 개발과 그 효과 연구. 대한간호, 33(3), 56-69.
- 홍근표, 정현숙, 강현숙, 오세영, 임난영 (1995). 기본간호학, 서울: 수문사.
- 홍여신, 최영희, 김조자 (1993). 간호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한간호, 32(2), 72-109.
- Attridge, C. B. (1996). Factors Confounding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Roles and Practices. J. of Nursing Education, 35(9), 406-412.
- Brown, S. T. (1981). Faculty and Student Perceptions of Effective Clinical Instructor. J. of Nursing Education, 20(9), 4-15.
- Kessenich, C. R. (1992). Curriculum counterrevolution. J. of Nursing Education, 31(8), 371-372.
- Kiker, P. J. (1973). Characteristics of the Effective Teacher. Nursing Outlook, 21(1), 721-723.
- McCabe B. W. (1985). The Improvement of Instruction in the Clinical Area. J. of Nursing Education, 24(6), 255-257.
- Meleca, C. B., Schimpthauer, F., Witteman, J. K. & Sachs, L. (1981). Clinical Instruction in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p.20
- Monahan, R. S. (1991). Potential Outcomes of Clinical Experience. J. of Nursing Education, 30(4), 176-181.
- Morse, W. A. & Corcoran-Perry, S. (1996). A Process Model to Guide Selection of Essential Curriculum Content. J. of Nursing Education, 35(8), 341-347.

— Abstract —

Key concept : Fundamental Nursing,
Clinical Education

A Study on the Contents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Lee, Young Whee* · Seo, Wha 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determining contents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and developing desirable bedside nursing techniques for clinical nursing areas.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86 nurses who were employees of two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a district area.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Items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were classified into 72 items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content analysis of 9 textbooks of Fundamental Nurs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Items which above 80% of respondents practiced during the school inside practice or clinical nursing practice course were axillary temperature

measurement, radial pulse measurement, respiratory rate measurement, application of oral hygiene, hand-washing technique, application of hot and cold bags, intramuscular injection technique, open bed-making, soap enema method, application of nelaton catheterization and oral and nasal suction methods.

2) Above 90% of respondents replied that all items except temperature measurement and bed-making were requisite contents for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Above 10% of respondents replied oral and rectal temperature measurement and bed-making were unnecessary content.

3) Above 90% of respondents replied that operating methods of all items except isolation technique, admission and discharge procedures, and retention enema in the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ourse and clinical situation were consistent. The main reasons that respondents did not apply methods which they learned in the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ourse to the clinical situation were 'insufficient time', 'colleagues were using different methods', 'insufficient supply of instruments' or 'inappropriate appliances'.

* Inha Univ. Nursing Dept.